

“수해 대참사 진상조사 절실”

도의회 의장단,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북도의회는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전북도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삼진강댐과 용담댐 지역 수해 대참사와 관련,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수해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남원 이외에 나머지 큰 피해지역 6곳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한원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전북도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은 결의대회를 통해 최악의 수해 참사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 보상책 마련과 함께 댐 관리기관의 수위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의장단은 “폭우가 예보 됐으면 댐에 있던 물을 미리 빼놔야 하는데 댐 관리기관이 수해 당일 뒤통스레 평소의 3~5배 물을 방류해 피해가 컸다”며 “이번 수해 대참사는 방류량 조절을 잘 못 해 빚어진 인재(人災)인 만큼 댐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원 뿐만 아니라 삼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인 순창, 무주, 임실, 진안, 장수, 완주 지역 주민도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환경부에서 위원회를 구

성해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며 면죄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나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60년 된 댐 운영 규정도 즉각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만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도의원들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방문과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수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오후에 전북도 세종사무소로 이동, 세종사무소 일반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관련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유호상 기자

친화력으로 도정에 ‘핵심’

최훈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전북도는 최훈 전 행정안전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24일자로 취임하며 공식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신임 부지사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전주 출신인 최 부지사는 전주고

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장, 지방세제정책관, 지방행정정책관과 전북도 정책기획관, 도 기획관리실장 등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도는 최 부지사가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회 등 유관기관과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도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꼼꼼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성격인 최 신임 부지사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시절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당원화합, 전북발전 이끌 도당 조성”

민주 김성주 도당위원장 중앙당 인준 통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중앙당 인준을 통과했다.

지난 20일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의

결의가 이뤄지고 지난 21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통과함에 따라 신임 김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도당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ARS조사 방식의 투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돼 도당위원장에 김성주 위원이 선출됐다.

김성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치에 몸담는 동안 나후퇴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선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당을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를 위해 당원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정당을 만들고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출신의 정치인들 즉 현재의 9명의 국회의원들이 원팀의 정신을 지켜 나가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함께 역량을 합친다면 자금의 현안을 확실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준수해 국난을 극복하고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중앙당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국민 소통 강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키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춘모)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의 관련자와 추진 상황 등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며 새만금 사업에 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신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mang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전자우편(sw17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제한은 없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수산분야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응 총력

전북도, 해수부에 “양식 피해 어가 복구비 보전 받아야” 건의

전북도는 양식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수산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뱀장어양식장 5개소 등 총 18개 양식장에서 70억원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어가가 재난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실정이다. 자연재난 복구지침(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식신고를 한 어가만 양식생물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양식어업의 피해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신고서를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호우피해를 본 도내 18개 양식장 중 4여기만 입식신고해 신고하지 않은 14여기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수산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수산 종자구입 및 입식한 증빙이 확실할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입식량을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및 지방세 감면, 복구 자금융자 등 적,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와 침수로 목이 무너진 노지양식장 및 파손된 PP수조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일부 고가 어종(뱀장어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한도인 5천만원으로는 실질적 복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복구를 위해 종자 입식비에 한해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도 자체적으로는 ▲향후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부과 ▲양식장 보조 사업 신청 시 입식신고 의무규정을 신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확대로 보험 가입률을 증대하는 등 피해 최소화화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는 입식 미신고로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 의무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10개국 12개 지역 온라인 무역사절단 가동

전북도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과 대면 접촉이 중단되면서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북 무역사절단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이번 온라인 무역사절단은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와 함께 8월 24일 인도를 시작으로 중동, 대양주,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에 이르기까지 10개국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참가기업은 사전 발굴된 해외 바이어와 지역별 상담기간에 맞춰 1:1 맞춤형 화상상담을 진행, 상담 이후에도 수출 성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 현안 목소리 높이는 최고위원 될 것”

민주 한병도 의원, 지지 호소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출신)은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당 지도부에 진출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 주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전북의 현안을 챙겨왔던 때처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번 수해로 전북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남원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수해피해가 큰 전북의 여러 지자체에 대한 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용담댐 과다 방류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전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수해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정당대회 분위기가 가리웠고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는 “본인의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은 2010년 정세균 최고위원 이후 10년 만”이라며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주어야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의회 의장단, 금속공장 창고 화재현장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장단은 지난 19일 발생한 오식도동 금속공장 창고 화재현장을 방문해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진압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21일 의장단은 지난 19일 화재 후 사흘 동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에 화재진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화재원인과 피해 상황을 설명받고 화재현장을 둘러보며 화재진압에 대한 어려움도 청취했다.

의장단은 “알루미늄은 폭발 가능성이 매우 커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고발생 시 철저한



대응 매뉴얼 및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해물진과 폐기물 유입은 물론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중증이 있으시다면?

1. 등고,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리기

자료: 질병관리본부